28과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오늘 공과는 82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은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잇는데 바탕화면이 현수가 침례받은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깔아놨습니다.

올해 하계 수양회 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저희 아들은 어릴 때 목욕탕에서 튀놀다가 뭐라고 하죠? 쑥 찜 탕 있잖아요

목욕탕인데 안에다가 쑥이랑 한약을 넣고 펄펄 끓이는 그 탕이 있습니다. 43도 정도 되는

뜨거운 탕인데

몇 살때 인가 거기서 뛰놀다가 머리부터 거꾸로 들어간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 코입에 뜨거운 쑥물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웃고 있었는데

한동안 안나오더라구요 저는 옆에서 웃고 있었는데 상황이 심각하다 싶어서 건져 올렸더니

한동안 자지러지게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후로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용감한데 지금도 잠수를 못해요 찬물에서도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목욕탕을 가면 항상 그게 안 맞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잠수하고 장난치는데 얘는 절대 여기 이상 안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침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놓고 얼마나 많은 용기를 북돋아줘야 됐는지 참 저희도 고생했습니다.

정말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물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어떻게 침례를 받았드라구요

침례 받고 와서 저는 못들었지만 저희 집에 와서 자매한테 한 첫 번째 말이 그거 였데요

나 오늘 침례 받았다. 그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 부터는 걸핏하면 나 침례 받았다 그러는거에요
무슨 자랑인줄 아나 이녀석이 뜻은 알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침례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 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3. Entonces Jesús vino de Galilea a Juan al Jordán, para ser bautizado por él.

14 Mas Juan se le oponía, diciendo: Yo necesito ser bautizado por ti, ¿y tú vienes a mí?

15 Pero Jesús le respondió: Deja ahora, porque así conviene que cumplamos toda justicia. Entonces le dejó.

16 Y Jesús, después que fue bautizado, subió luego del agua; y he aquí los cielos le fueron abiertos, y vio al Espíritu de Dios que descendía como paloma, y venía sobre él.

17 Y hubo una voz de los cielos, que decía: Este es mi Hijo amado, en quien tengo complacencia.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요단강 빈 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먼 거리인데 당시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죠

거의 온 이스라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있구요

이때 예수님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받는 세례, 침례는 조금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세례입니다.

즉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자기의 죄사함을 만인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반대로 반면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되있거든요 즉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버리겠다는 그런 회개의 세례입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그 때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겠다는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죄인이 회개하는 세례나 이방인이 개종하는 세례는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죠

왜냐면 예수님은 이방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제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세상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써 자신을

죄인들 우리와 동일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써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온 세상죄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그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의미에서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 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눅12:50) De un bautismo tengo que ser bautizado; y !!cómo me angustio hasta que se cumpla!

그런말씀 하셨잖아요? 이미 세례를 받으셨지만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장차받을 세례를 전제로 한거죠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16절에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되있잖아요?

올라왔다는 말은 완전히 물로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물에 들어갈 때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올라올 때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표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세례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16)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 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Y Jesús, después que fue bautizado, subió luego del agua; y he aquí los cielos le fueron abiertos, y vio al Espíritu de Dios que descendía como paloma, y venía sobre él.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이 표현은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즉 죽과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열릴 것을

또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에게 머무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이 나왔다고 되어있는데

이 것 역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죄인에게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다싶이 구원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시죠

예수님의 세례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내용을 구약 성경하고 연결을 지어서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안수하고 또 세례 받게 하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을

대제사장이 희생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죽게하는 표현으로 연결을 지어서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게 안수할 때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가 되었다.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한 그 의미를 모르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첫째로 세상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시점이

이 때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요한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까? 하나님이 전가시킵니까?

하나님이 전가시키잖아요? 세례요한의 역할은 단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앞서 온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지

세례요한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세상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또한 세례요한이 대 제사장 자신도 아니죠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되어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게 제사인데 제물은 또 누구입니까?

제물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써 자기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 같은 것은 히브리서 같은 구절을 찾아봐도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죠

참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Porque tal sumo sacerdote nos convenía: santo, inocente, sin mancha, apartado de los pecadores, y hecho más sublime que los cielos;

여기에 말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que no tiene necesidad cada día, como aquellos sumos sacerdotes, de ofrecer primero sacrificios por sus propios pecados, y luego por los del pueblo; porque esto lo hizo una vez para siempre, ofreciéndose a sí mismo.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써 자기몸을 제물로 드린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제물이었고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는 그런 주장들은 구원받을 때 불필요 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완전히 어긋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이전에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외경같은데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마술을 많이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것 같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로써 그리고 자라감으로써 그 나이에 맏는 지혜를 부여받으신거거든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때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아신다.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지혜가 키가 자라면서 충족해진 것이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자기를 드러내실 때가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에 소개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그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그 날로 인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나뉜겁니다.

세례받기 이전에는 공생에가 시작되지 않았고 단지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세례받으신 날까지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날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써 소개가 되었고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공개적인 선언이 있고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다시는 마리아의 아들로써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써 또한 세상죄를 지고가는 어린양으로써의

역할을 해야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나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1. Y yo no le conocía; mas para que fuese manifestado a Israel, por esto vine yo bautizando con agua.

3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33. Y yo no le conocía; pero el que me envió a bautizar con agua, aquél me dijo: Sobre quien veas descender el Espíritu y que permanece sobre él, ése es el que bautiza con el Espíritu Santo.

물로 세례를 준 이유가 31절에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함이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소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요한은 그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게되면

온 이스라엘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된 거에요

그래서 공생에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생애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세상

죄를 지고가는

어린양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줍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사사로운 일 자기 집안에 일이나 가정적인일이나

마리아 개인의 부탁에 얽메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야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일을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마리아가 몇가지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단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례의 의미인데요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

물론 이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받는게 있고 물로 세례받는게 있습니다.

성령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이야기 해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게 아니죠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만인 앞에서 물에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앙을 모든사람앞에 간증하는 행위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동일한 의미이죠 첫째로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간증하는 신앙고백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그리고 나온 것은 부활한 것을 가르칩니다.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었고 다시 살아날 때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났죠 그러니까 죄인은 죽었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세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간증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으 아들이 되었다는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의 침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한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형제자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하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간증하는 거에요

차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 째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세례다.

골로세서 2장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 sepultados con él en el bautismo, en el cual fuisteis también resucitados con él, mediante la fe en el poder de Dios que le levantó de los muertos.

여기에 보면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일으키심은 나의 일으키심이죠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행위가

첫째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건데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

르심을 입었느니라
un cuerpo, y un Espíritu, como fuisteis también llamados en una misma esperanza de vuestra vocación;

5.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un Señor, una fe, un bautismo,

6.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un Dios y Padre de todos, el cual es sobre todos, y por todos, y en todos.

여기 보면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도 되어있습니다.

내가 동일하게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교회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형제자매 앞에서

간증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간증한 사람은 더 이상은 개인으로써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즉 침례를 받고난 다음부터는 교회의 일원으로써 행동을 해야됩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되는거죠

만일 침례를 받고도 교회의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간증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으로써 살아가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써 평생 살겠습니다. 여기있는 형제 자매님들 가족으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라고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거죠

만일 교제를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요한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세상 졸업식이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세상과는 아무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세상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갈라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인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세례의 모형이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나와있는데

첫째는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때에 온세상이 물에 잠겼고 그 때 노아의 방주에 탄사람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새 생명가운데서 살아가는건데요

노아의 홍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한다면

또 한가지 세례의 예표가 있는데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일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1 Porque no quiero, hermanos, que ignoréis que nuestros padres todos estuvieron bajo la nube, y todos pasaron el mar;

2.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2 y todos en Moisés fueron bautizados en la nube y en el mar,

여기보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을 세례 받은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는 이집트와 광야 사이에 놓여있었죠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를 완전히 나누는 역할을 홍해바다가 했습니다.

이 세례를 받기전 즉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이집트의 바로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아왔죠

잡아가려고 만일 앞에 홍해가 없었다면?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바로왕에게 다 다시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종살이를 했을 겁니다.

또 만일 홍해가 없었다면 그들이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 갈 수 있었을꺼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살면서 10번이나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때 마다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다시돌아갈 때 홍해가 가로막혀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가 되돌아갈 때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열어준 바닷길인데 그들이 되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때도 또 바닷길이 열리겠어요?

안열리죠? 되돌아갈래야 되돌아갈 수 없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가나안과 그리고 이집트를 완전히 나누는 출발점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간혹 이집트를 그리워 했어도

결코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홍해바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세례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 세상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할 빠에야 차라리 그냥 옛날로돌아가자

그런데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있다는거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신앙간증을 했거든요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 양심의 송사가 있거든요 네가 지금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고백했지 않느냐? 침례 받지 않았느냐?

다시 되돌아간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은 다시는 되돌아 갈 수 없게 되버린 거에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세력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뱅뱅 돌수는 있어도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는 더 이상은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거죠

아무리 애굽을 그리워해도 되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가망이 없는일이잖아요

그러면 할 일은 뒤도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광야에서 빙빙돌았지만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는 뒤로 물러갈수 없는 겁니다.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혹 정체하는 사람은 있을수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겁니다.

그 침례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에요

베드로전서 4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1.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Puesto que Cristo ha padecido por nosotros en la carne, vosotros también armaos del mismo pensamiento; pues quien ha padecido en la carne, terminó con el pecado,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para no vivir el tiempo que resta en la carne, conforme a las concupiscencias de los hombres, sino conforme a la voluntad de Dios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Baste ya el tiempo pasado para haber hecho lo que agrada a los gentiles, andando en lascivias, concupiscencias, embriagueces, orgías, disipación y abominables idolatrías.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 하셨죠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로 즉시 과거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보면 그동안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다시 또 그것을 그리워 하겠느냐?

그것은 이미 족하다 이제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이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것 침례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하면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례받았다고 제가 처음 이시간 들어왔을 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 세례받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말로 이 3가지를 내가 간증했다는 표현이 되는거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앞으로 다시는 옛날 생활에

억메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형제자매와 마귀앞에서 고백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고백 간증에 합하는 생활을 하셔야 될겁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서 이 세례 받은 것과 합하지 않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되세겨보고

그리고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porque todos los que habéis sido bautizados en Cristo, de Cristo estáis revestidos.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처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입었다 말씀드리며~